

국내 프랑스어 교육학 연구 동향 분석 및 고찰

김은정[†]

서울대학교

Research Trends Regarding French Didactics in Korea

En-Jung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of academic research by reviewing a total of 218 Korean articles related to French didactics that were published from 2005 to 2018. The study focused on the topics of research. We first classified the research topics to facilitate analysis. Next, the research topics of French didactics were analyzed and comprehensively reviewed to examine the trends of academic research. Finally, based on the implications derived in this process, several proposals are suggested for improving the situation and for future research of French didactics.

Keywords: French didactics, research trends, research topics, review, analysis

1. 서론

국내에서 실천과 경험이 규칙화된 기술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프랑스어 교육학 (Didactique du FLE)은 관련 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다양한 외국어 구사능력이 강조되는 세계화 시대의 영향으로 이제 하나의 과학적 학문으로 인정받으며 그 입지를 구축·확립해 가고 있다.¹⁾ 이 같은 시점에서 국내 프랑스어 교육학이 하나의 과학적 학문으로서 그 입지를 공고히 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내 프랑스어 교육학의 연구 동향을 고찰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프랑스어 교육학 연구 동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프랑스어 교육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프랑스어 교육학의 연구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

[†] Corresponding author: ejk1982@snu.ac.kr

1) 심봉섭(2005, 2015)은 프랑스어 교육학의 학문적 독자성에 대해 논의하며 국내에서 프랑스어 교육학이 하나의 과학적 학문으로서 그 입지를 확립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역설한 바 있다.



서는 연구 동향 분석을 돕기 위해 프랑스어 교육학의 연구 주제를 분류할 것이다. 3장에서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²⁾ 산출된 프랑스어 교육학 관련 논문을 연구 주제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고찰할 것이다. 그 다음 4장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국내 프랑스어 교육학의 문제점을 진단할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국내 프랑스어 교육학의 문제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우리는 프랑스어 교육학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이하 KCI)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는 국내 프랑스어 교육학 연구 논문³⁾을 논문 수, 연구 주제, 연구 참여 유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연구 주제 분석을 수월히 하기 위해 프랑스어 교육학 분야 연구 주제를 분류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심봉섭(2015:36)의 프랑스어 교육학 하위 분야 분류 체계⁴⁾와, 권오량(2014:204)의 영어교육 하위 주제 분류표⁵⁾를 참조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위 분야에는 심봉섭(2015)의 분류 체계를 응용하고, 그 안에 세부 분야에서는 권오량(2014)이 분류한 연구 주제를 프랑스어 교육학 성격에 맞게 수정하고 응용하여 표 1과 같이 연구 주제 분류표를 마련하였다.

2) 분석 대상 논문을 2005년에서 2018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임의적이다. 다만 2005년을 시작점으로 삼은 것은 ‘과학적 학문으로서 프랑스어 교육학’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진 심봉섭의 2005년 연구논문 발행 시점을 고려한 것이다.

3) 해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첫째, KCI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되어 있지 않은 논문은 사실상 확인이 어렵고, 둘째,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4) 심봉섭(2015)은 하나의 과학적 학문으로서 프랑스어 교육학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프랑스어 교육학 하위 분야 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프랑스어 교육 관련 저서들과 프랑스어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들의 교육과정에 진술되어 있는 교과목명을 중심으로 프랑스어 교육학의 하위 분야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다.

5) 권오량(2014)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세부 유목과 분류 체계를 응용하여 영어교육의 연구 주제를 세부적으로 정리하였다.

표 1. 연구 주제 분류표

상위 분야 주제	세부 분야 주제
1. 프랑스어 교사	1. 교사교육, 2. 교사인식, 3. 기타
2. 프랑스어 교수법	1. 교수법 일반, 2. 언어기능별(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교수법, 3. 기타
3. 프랑스어 교재	1. 교과서, 2. FLE 교재, 3. (사실·실제)자료 ⁶⁾ , 4. 기타
4. 프랑스어 의사소통교육	1. 의사소통 능력, 2. 학습자 심리, 3. 학습자 태도·전략, 4. 언어·문화 (통합)교육, 5. 기타
5. 프랑스어 문법교육	1. 문법교육, 2. 문법오류, 3. 기타
6. 프랑스어 어휘교육	1. 어휘교육, 2. (문화)어휘, 3. 기타
7. 프랑스어 문화교육	1. 문화교육, 2. 상호문화·다문화 교육, 3. 기타
8. 프랑스어 평가	1. 평가, 2. 언어기능별(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평가, 3. 프랑스어언어능력(DELF/DALF) 평가, 4. 기타
9. 프랑스어 교육과정	1. 교육과정, 2. 교육정책, 3. 기타
10. 프랑스어 발음교육	1. 알파벳, 2. 연음 및 억양, 3. 기타
11. 프랑스 문학교육	1. 문학교육, 2. 기타
12. 프랑스어교육 일반	1. 프랑스어 교육학, 2. 프랑스어 교육현황 및 고찰(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3. 기타

이와 같이 우리는 연구 주제 분류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어 교육학의 연구 주제를 12개의 상위 분야와 관련 세부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또한 표 1에서 ‘기타’ 부분은 상위 분야에 속하지만, 세부 분야 주제와 다른 소수 주제들을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 분류표는 분류·분석의 편의를 위해 정한 것으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 상위 및 세부 분야들이 프랑스어 교육학 연구 주제 대부분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프랑스어 교육학의 주제별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유의미한 분류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2.2. 조사 방법

우리는 KCI 사이트에서 논문 검색을 위해 발행일자는 2005년 1월부터 2018년 12월 까지, 등재구분은 등재지와 등재 후보지를 모두 포함하도록 설정하고, 주제 분류 시대분류는 ‘인문학’, 중분류는 ‘프랑스어와 문학’을 선택한 후, ‘프랑스어 교육’ 혹은 ‘불어 교육’ 관련 논문을 선별하였다. 그 결과 총 218편의 프랑스어 교육학 관련 논문을 수집할 수 있었다.⁷⁾

6) 수업재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교재’ 분야에 포함하였다.

한편 우리는 KCI 사이트에서 연구 논문의 제목을 비롯하여 저자(공동저자),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등재 구분, 발행년, 권(호), 페이지, 핵심어(키워드), 피인용 횟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가운데 연구 논문의 주제를 엿볼 수 있는 ‘제목과 핵심어(키워드)’는 218편의 논문을 12개의 상위 분야 주제에 알맞게 분류하는 데 주된 참조기준이 되었다. 한편 이 과정에서 논문 제목과 핵심어가 두 분야 이상에 부합하는 경우가 확인되었는데, 이 경우 한 편의 논문을 두 분야 이상에 중복적으로 포함하였다. 가령 ‘문화교육과 문학교육에 관한 대화적 단상(임현, 2010)’의 경우, ‘문화교육’과 ‘문학교육’이라는 핵심어가 ‘프랑스 문화교육’과 ‘프랑스 문학교육’ 분야에 모두 부합하므로 이 두 분야에 중복적으로 포함하였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수집된 주제 분석 대상 논문 수는 240편이었다.

3. 프랑스어 교육학 연구 동향 분석 및 고찰

본 절에서는 총 218편의 연구 논문을 논문 수, 연구 주제, 연구 참여 유형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내 프랑스어 교육학의 연구 동향을 고찰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게재된 연도별 프랑스어 교육학 총 논문 수와, 12개 상위 분야별 총 논문 수를 확인할 것이다. 그 다음 표 1에 제시된 12개 상위 분야 순으로 연구 주제별 연구 동향을 보다 면밀히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참여한 저자 수 확인을 통해 프랑스어 교육학 연구 참여 유형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3.1. 논문 수

먼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게재된 연도별 프랑스어 교육학 총 논문 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 218편의 프랑스어 교육학 논문은 약 5회 이상의 검토 과정을 통해 수집되었다. 1차적으로, ‘프랑스어·프랑스어 교육·불어·불어교육’을 주제로 하는 논문 총 974편, 2차적으로, 이 가운데 순수 문학과 언어학 관련 논문을 제외한 총 320편, 이후 논문 제목과 핵심어, 그리고 필요한 경우 요약문을 바탕으로 최소 3차례 이상 반복 검토를 통해 순수 프랑스어 교육학 논문 218편을 수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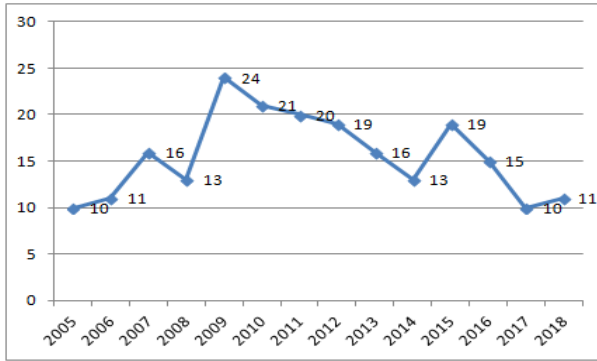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프랑스어 교육학 총 논문 수

조사결과 유의미한 양적 변화를 보였던 2007년, 2009년, 2015년을 제외하고 논문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발하였던 2009년에서 2012년 대에는 논문의 감소폭이 최소 1편에서 최대 3편이었으나, 2012년 이후에는 최소 3편에서 최대 9편으로 커졌다. 이 같은 결과는 프랑스어 관련 학과가 사라지거나 통폐합되는 등 프랑스 관련 학문의 입지가 날로 축소되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 다음 우리는 프랑스어 교육학의 주제별 연구 동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주제 중복 논문을 포함한 240편의 논문을 12개의 상위 분야 주제에 알맞게 분류하였다. 그 결과를 표와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12개 상위 분야 주제별 논문 수

상위 분야 주제	논문 수	백분율 (%)	순위
1. 프랑스어 교사	3	1.25	11
2. 프랑스어 교수법	50	20.83	2
3. 프랑스어 교재	27	11.25	4
4. 프랑스어 의사소통교육	28	11.67	3
5. 프랑스어 문법교육	17	7.08	7
6. 프랑스어 어휘교육	4	1.67	10
7. 프랑스어 문화교육	54	22.50	1
8. 프랑스어 평가	5	2.08	9
9. 프랑스어 교육과정	19	7.92	6
10. 프랑스어 발음교육	3	1.25	12
11. 프랑스 문학교육	11	4.58	8
12. 프랑스어교육 일반	19	7.92	5
합계	24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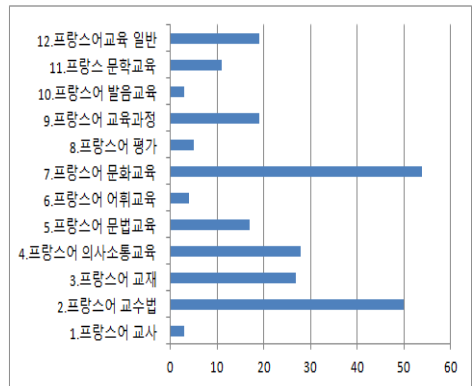


그림 2. 12개 상위 분야 주제별 논문 수

이와 같이 전체 12개 상위 분야 가운데 7. 프랑스어 문화교육 분야의 논문이 전체의 22.50%로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 2. 프랑스어 교수법 분야가 20.83%로 2위였으며, 이 두 분야의 합계가 43.33%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다. 그리고 4. 프랑스어 의사소통 교육 분야가 11.67%로 3위, 3. 프랑스어 교재 분야가 11.25%로 4위였으나, 그 비중은 앞선 두 분야의 절반에 그쳤다. 그 외 나머지 분야, 곧 12. 프랑스어교육 일반(7.92%)이 5위, 9. 프랑스어 교육과정(7.92%)이 6위, 5. 프랑스어 문법교육(7.08%)이 7위, 11. 프랑스 문학교육(4.58%)이 8위, 8. 프랑스어 평가(2.08%)가 9위, 6. 프랑스어 어휘교육(1.67%)이 10위, 1. 프랑스어 교사(1.25%)가 11위, 그리고 10. 프랑스어 발음교육(1.25%)이 12위였다. 이 가운데 9위부터 12위까지 하위 4분야, 곧 ‘8. 프랑스어 평가·6. 프랑스어 어휘교육·1. 프랑스어 교사·10. 프랑스어 발음교육’ 분야가 전체의 1~2%대로 비중이 가장 작았다. 프랑스어 교사 분야의 경우 교사 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일이지만, 나머지 세 분야의 경우 프랑스어 교육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3.2. 연구 주제

다음으로 우리는 표 1에 제시된 12개 상위 분야 순으로 연구 주제별 연구 동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 및 고찰할 것이다.

3.2.1. 프랑스어 교사

프랑스어 교사 분야는 전체의 1.25%(3편)로 12분야 가운데 11위를 차지하여 관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사실상 프랑스어 교사를 임용하지 않는 현실에서 연구자들이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교사의 범위에는 임용교사를 통하는 교사뿐만 아니라 대학과 그 외 알리앙스 프랑세즈 (Alliance Française) 등과 같은 기관에서 프랑스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모두 포함된다는 점과, 효율적인 프랑스어 교육을 위해 교수자 역할이 중요하다는 일반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교수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 분야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우리는 이 분야의 연구 동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각 세부 영역의 논문 수와 논문의 주제를 엿볼 수 있는 핵심어를 함께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프랑스어 교사 분야 논문 수

프랑스어 교사	논문 수	백분율(%)
1. 교사교육	2	66.67
2. 교사인식	0	0
3. 기타	1	33.33
합계	3	100

조사결과 1. 교사교육이 2편, 3. 기타 1편, 그리고 2. 교사인식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편의 논문이 존재하는 교사교육 영역의 핵심어를 조사한 결과, 예비교사를 가정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FLE 예비교사·예비교사 양성·프랑스어 예비교사’ 등이 주요하였다.

3.2.2. 프랑스어 교수법

프랑스어 교수법 분야는 전체의 20.83%(50편)로 12분야 가운데 2번째로 비중이 커서, 관련 연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분야의 연구 동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각 세부 영역의 논문 수와 논문의 주제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어를 함께 조사하였다. 먼저 각 세부 영역의 논문 수를 살펴보자.

표 4. 프랑스어 교수법 분야 논문 수

프랑스어 교수법	논문 수	백분율(%)
1. 교수법 일반	10	20
2. 언어기능별(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교수법	38	76
3. 기타	2	4
합계	50	100

위 표에서 보듯이 2. 언어기능별 교수법 관련 논문이 38편(76%)으로 가장 많았으며, 1. 교수법 일반 관련 논문은 10편(20%)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각 영역의 중점 연구 내용을 엿볼 수 있는 핵심어를 조사한 결과, 먼저 교수법 일반 관련 논문의 경우, ‘유럽공통참조기준(Cadre Européen Commun de Référence pour les langues)(4)⁸⁾, 행위중심접근법(approche actionnelle)(4), 의사소통접근법(approche communicative)(3), 교수·학습 절차 및 습득(2), 시청각교수법(2), 제2외국

8) 괄호 안의 수는 반복 횟수를 의미한다.

어서 프랑수어(3)⁹⁾가 주요하였으며, 이 가운데 유기적 관계에 놓여있는 ‘유럽공동참조 기준’과 ‘행위중심접근법’¹⁰⁾은 모두 4회 이상 자주 언급되었다. 그 다음 언어기능별 교수법 분야의 경우, 두 가지의 언어기능을 통합한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쓰기·말하기 통합교육, 읽기·쓰기 통합교육, 읽기·말하기 통합교육’ 등과 같은 핵심어가 최소 3회 이상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날 일반교과 전반에 걸쳐 강조되는 창의·융합 교육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상 분야의 결합과 통합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처럼 두 가지 이상의 언어기능을 통합한 프랑수어 교육은 언어 능력과 더불어 창의·융합사고력 함양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언어기능별 교수법 분야의 경우, 여기에 포함된 듣기·말하기·읽기·쓰기라는 4가지 언어기능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며 외국어 교육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각 기능별 논문 수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를 표와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언어기능별 교수법 논문 수

언어기능별 교수법	논문 수	백분율(%)
1. 듣기	4	10.53
2. 말하기	16	42.11
3. 읽기	11	28.95
4. 쓰기	7	18.42
합계	3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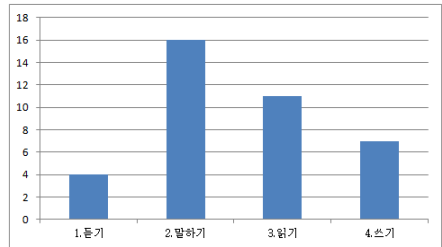


그림 3. 언어기능별 교수법 논문 수

이와 같이 ‘말하기’ 관련 논문이 16편(42.11%), ‘읽기’ 11편(28.95%), ‘쓰기’ 7편(18.42%), 그리고 ‘듣기’ 4편(10.53%) 순으로, 논문의 분포가 매우 고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수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compétence communicative)¹⁰⁾이 문화를 포함하여 이 4가지 언어 능력의 조화로운 발달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결과는 프랑수어 교육의 목표와 상충하는 연구 동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9) 유럽연합(Union européenne)의 존속을 위해 역내 구성원 간의 언어 및 문화 소통이 중요해짐에 따라 유럽연합 내 활발한 이동·교류와 구성원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체적이고 투명하며 일관성 있는 언어교육과 평가 및 인증체계를 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럽공동참조기준이며, 이 유럽공동참조기준에서 채택한 교수·학습 방법론이 바로 행위중심접근법이기 때문이다.

10) 오늘날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대변하는 의사소통 능력(compétence communicative)은 1970년대 중반 언어 구조의 정확성보다는 의미 전달의 성사 여부를 강조하는 의사소통접근법(approche communicative)과 함께 등장한 개념으로, 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리고 문화라는 다섯 가지 능력이 서로 조화롭게 발현될 때 발달될 수 있다(Canale et Swain 1980:28-31; Moirand 1982:20; Boyer, Butzbach-Rivera, et Pendants 1990:46-51; Bérard 1991:28-31).

3.2.3. 프랑스어 교재

프랑스어 교재 분야는 전체의 11.25%(27편)로 12분야 가운데 4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이 분야의 연구 동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세부 영역별 논문 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프랑스어 교재 분야 논문 수

프랑스어 교재	논문 수	백분율(%)
1. 교과서	7	25.93
2. FLE 교재	3	11.11
3. (사실·실제)자료	17	62.96
4. 기타	0	0
합계	27	100

조사결과 ‘3.(사실·실제)자료’ 관련 논문이 17편(62.96%)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1. 교과서’와 ‘2. FLE 교재’ 관련 논문은 각각 7편(25.93%)과 3편(11.11%)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렇듯 ‘(사실·실제)자료’ 관련 연구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오늘날 외국어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해 일상에서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 활용 능력이 부각됨에 따라,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이 담긴 실재자료(document authentique) 활용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이 증대된 것과 관련이 깊다고 여겨진다. 또한 김은정(2018:102)이 밝히고 있듯이, 문서 형태부터 시청각 형태까지 다양한 사실·실재 자료는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쉬울 뿐만 아니라, 교실 안에서 형식적 노출을 통해 프랑스 언어 및 문화를 습득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학습자가 프랑스 언어와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교과서’와 ‘FLE 교재’의 경우, ‘교과서’ 관련 연구가 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공통참조기준에 따라 프랑스인이 집필하는 것이 보편적인 ‘FLE 교재’와 달리 ‘교과서’는 한국의 교육과정에 따라 한국인이 집필하는 것이 일반적인 까닭에 한국의 교육 상황과 교육과정에 밝은 한국인 연구자가 이와 관련한 연구를 선호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교과서’에 비해 ‘FLE 교재’ 관련 연구가 미미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FLE’ 교재 역시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수업재료의 한 종류로서, 교수자, 학습자와 더불어 수업을 구성하는 3요소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게다가 한국의 대학 교양 프랑스어 수업에서 FLE 교재가 적지 않은 비율로 활용되고 있다¹¹⁾는 사실은 이 같은 FLE 교재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

11) 김은정(2018)의 ‘대학 교양 프랑스어 교육 현황 고찰’이란 제목의 연구에서 ‘교양 프랑스어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교재’를 조사한 결과, FLE 교재 Amical 1(2012)의 사용 비율이 전체의 24%로 가장 높았다.

침하는 또 다른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FLE 교재’의 경우, 유럽의 교수·학습 상황에 적합한 유럽공통참조기준에 의거하여 제작된 만큼, 한국의 특수한 교수·학습 상황을 고려한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며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3.2.4. 프랑스어 의사소통교육

프랑스어 의사소통교육 분야는 전체의 11.67%(28편)로 12분야 가운데 3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의사소통접근법에 이론적 기반을 둔 ‘프랑스어 의사소통교육’은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해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수업운영에 있어 교수가 중심이 되는 전통교수법과 달리 학습자가 중심이 된다. 의사소통교육 분야의 세부 영역에 언어·문화(통합)교육과 함께 ‘학습자 심리, 학습자 태도·전략’이 포함되는 이유이다. 이제 우리는 이 분야의 연구 동향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각 세부 영역의 논문 수와 논문의 주제를 엿볼 수 있는 핵심어를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각 세부 영역의 논문 수는 다음과 같다.

표 7. 프랑스어 의사소통교육 분야 논문 수

프랑스어 의사소통교육	논문 수	백분율(%)
1. 의사소통 능력	13	46.43
2. 학습자 심리	5	17.86
3. 학습자 태도·전략	6	21.43
4. 언어·문화(통합)교육	4	14.29
5. 기타	0	0
합계	28	100

위 표에서 보듯이 ‘의사소통 능력’을 주제로 하는 논문은 13편(46.43%)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학습자 심리’, ‘학습자 태도·전략’, ‘언어·문화(통합)교육’ 관련 논문은 최대 6편(21.43%)에서 최소 4편(14.29%)으로 논문의 분포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영역의 중점 연구 내용을 엿볼 수 있는 핵심어를 조사한 결과, 먼저 프랑스어 의사소통 능력을 주제로 하는 논문의 경우, ‘비언어적 의사소통(2), 실용적 의사소통 능력, 일상적 의사소통 능력(3), 구어체 프랑스어(2), 속어 프랑스어, 제스처’가 주요하였다. 이와 같은 핵심어를 통해 비언어적 요소를 포함해 일상적이고 구어적인 프랑스어 능력 함양을 위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 학습자 심리나 태도·전략을 주제로 하는 논문의 경우, 한국인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이나 태도를 밝혀주는 주저함(réticence), 불안감(anxiété), 체면, 침묵’과 같은 핵심어가 주요하였는데, 이는 의사소통접근법과 같은 현대적 교수법에 입각한 학습자 중심의 프랑스어 교육

연구가 미미하게나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어·문화(통합)교육을 주제로 하는 논문의 경우, ‘행위중심접근법(3), 의사소통접근법(4)’과 같은 핵심어가 빈번히 사용되어, 이 두 가지 이론에 기반을 둔 언어·문화 교육 논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3.2.5. 프랑스어 문법교육

프랑스어 문법교육 분야는 전체의 7.08%(17편)로 12분야 가운데 7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과거 전통교수법에서 문법교육이 차지한 높은 위상에 비추어 볼 때 관련 논문이 감소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여기에는 표현의 정확성과 상관없이 의미 전달 성사를 중시하는 의사소통접근법으로의 교수법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는 이 분야의 연구 동향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각 세부 영역의 논문 수와 연구의 독창성을 밝혀주는 핵심어를 조사하였다. 먼저 세부 영역의 논문 수는 다음과 같다.

표 8. 프랑스어 문법교육 분야 논문 수

프랑스어 문법교육	논문 수	백분율(%)
1. 문법교육	14	82.35
2. 문법오류	3	17.65
3. 기타	0	0
합계	17	100

이와 같이 1. 문법교육 관련 논문이 14편(82.35%)으로 가장 많았고, 2. 문법오류 관련 논문은 3편(17.65%)으로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다음으로 각 영역의 중점 연구 내용을 엿볼 수 있는 핵심어를 조사한 결과, 먼저 ‘문법교육’을 주제로 하는 논문의 경우, ‘대응문법, 관사(3), 문법담화, 교육문법/학술문법(4), 대명사, 정관사(2), 부정관사, 부분관사, 관사교육모델, 관사교육, 부정의 de, 문법교육과제, 시간 전치사, 의문문, 규범문법, 학교문법, C'est vs Il(Elle) est, 속사, 복합과거, 프랑스어 상(aspect) 교육, 전치사 dans·a·en’ 등이 주요하였으며, 이 가운데 관사 관련 핵심어가 7회 이상 언급되어 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 문법오류 관련 논문의 경우, 한국인 학습자가 자주 범하는 문법적 실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는 ‘외국어로서 프랑스어 문법, 한국인 학습자 문법 오류, 오류 분석’ 등과 같은 핵심어가 주요하였다.

3.2.6. 프랑스어 어휘교육

프랑스어 어휘교육 분야는 전체의 1.67%(4편)로 12분야 가운데 10위를 차지해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언어 구조의 정확성보다 의미 전달의 성사 여부를 강조하며 등장한 의사소통접근법 이후, Rivers(1983), Galisson (1991), Bogaards(1994)와 같은 여러 학자들은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형태(forme)보다 의미(sens), 정확성(précision)보다 유창성(aisance)을 중시하며 어휘에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장하였다. 어휘가 담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면서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이 되는 언어 단위(Courtillon, 1989:147)로서 의사소통 성립의 핵심 요소(Cuq & Gruca, 2003:364)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해 어휘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의사소통 상황에 알맞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어휘 능력 발달을 염두에 둔 어휘교육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한편 우리는 이 분야의 연구 동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세부 영역의 논문 수와 논문 주제를 엿볼 수 있는 핵심어를 함께 조사하였다. 먼저 각 세부 영역의 논문 수는 다음과 같다.

표 9. 프랑스어 어휘교육 분야 논문 수

프랑스어 어휘교육	논문 수	백분율(%)
1. 어휘교육	2	50
2. (문화) 어휘	2	50
3. 기타	0	0
합계	4	100

위 표에서 보듯이 ‘1. 어휘교육’과 ‘2. (문화)어휘’ 관련 논문이 2편씩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각 영역의 중점 연구 내용을 엿볼 수 있는 핵심어를 조사한 결과, 먼저 어휘 교육을 주제로 하는 논문의 경우, 어휘 선택의 문제가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는 ‘어휘 선택 (2), 기본 어휘 선별’ 등이 주요하였다. 그 다음 (문화) 어휘 관련 논문의 경우, ‘문화 어휘 선별, 문화어휘 목록, 공유문화 적재어, 빈도수’ 등의 핵심어가 보여주듯이, 어휘와 문화의 응집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어휘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7. 프랑스어 문화교육

프랑스어 문화교육 분야는 전체의 22.50%(54편)로 12분야 가운데 비중이 가장 커서, 관련 연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으로 부상한 의사소통접근법과 행위중심접근법이 언어 능력 향상에 있어 부차적인 요소로 간주되곤 하였던 문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연구자들의 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이제 우리는 이 분야의 연구 동향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각 세부 영역의 논문 수와 연구의 독창성을 밝혀주는 핵심어를 차례로 확인할 것이다. 먼저 각 세부 영역의 논문 수를 살펴보자.

표 10. 프랑스어 문화교육 분야 논문 수

프랑스어 문화교육	논문 수	백분율(%)
1. 문화교육	34	62.96
2. 상호문화·다문화 교육	18	33.33
3. 기타	2	3.70
합계	54	100

조사결과 1. 문화교육 관련 논문이 34편(62.96%)으로 가장 많았고, 2. 상호문화·다문화 교육 관련 논문이 그 절반에 해당하는 18편(33.33%)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각 영역의 중점 연구 내용을 엿볼 수 있는 핵심어를 조사한 결과, 먼저 문화교육을 주제로 하는 논문의 경우, ‘문화콘텐츠(5), 문화교육 강좌(개발)(4), 상송과 문화교육(3), 문화·예술 교육(3), 지역학 교육, 문화적 내용(2), 문화교육 방식(5)’ 등이 주요 하였던 사실을 통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연계한 문화교육 연구가 시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 상호문화·다문화 교육 관련 연구의 경우, ‘다문화 정책, 다문화 언어교육 체계, 프랑스 초등학교 상호문화 교육, 상호문화 교육 모델’ 등과 같은 핵심어가 주요하였던 사실을 통해, 언어 능력 발달이외 상호문화·다문화 이해 능력 발달에 초점을 둔 프랑스어 교육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3.2.8. 프랑스어 평가

프랑스어 평가 분야는 전체의 2.08%(5편)로 12분야 가운데 9위를 차지해 관련 연구가 매우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évaluation)는 교수자가 학습자의 성취 결과와 학습과정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수업운영을 계획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인 동시에, 학습자가 자신의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점을 인식하여 보완하는 데 필요한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근남(2015: 475)은 평가는 현대 교과 교육학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어 교육에서 역시 다음 단계·학습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이렇듯 보다 효율적인 외국어 능력 발달에 필수적인 과정 중 하나가 바로 ‘평가’라는 점에서 프랑스어 평가 분야는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 분야의 연구 동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각 세부 영역의 논문 수와 중점 연구 내용을 밝혀주는 핵심어를 차례로 살펴보자. 먼저 각 세부 영역의 논문 수는 다음과 같다.

표 11. 프랑스어 평가 분야 논문 수

프랑스어 평가	논문 수	백분율(%)
1. 평가	3	60
2. 언어기능별(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평가	1	20
3. 프랑스어언어능력(DELF/DALF) 평가	0	0
4. 기타	1	20
합계	5	100

이와 같이 1. 평가를 주제로 한 논문이 3편, 2. 언어기능별 평가와 4. 기타는 각각 1편씩 존재하였으며, 3. 프랑스어능력(DELF/DALF) 평가 관련 논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각 분야의 중점 연구 내용을 엿볼 수 있는 핵심어를 조사한 결과, 먼저 프랑스어 교과목 전반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한 논문의 경우, ‘교과목 평가, 평가 방식(2), 오류 평가(2), 오류의 수정, 강의평가’ 등이 주요하였다. 그 다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포함한 언어기능 평가 관련 연구의 경우, ‘읽기 평가, 문어 의사소통 능력 평가, 읽기 자료, 읽기 학습 목표’ 등과 같은 핵심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4가지 언어기능 가운데 읽기 능력 평가 관련 논의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3.2.9. 프랑스어 교육과정

프랑스어 교육과정 분야는 전체의 7.92%(19편)로 12분야 가운데 6위를 차지하였다. 이제 이 분야의 연구 동향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각 세부 영역의 논문 수와 논문 주제를 엿볼 수 있는 핵심어를 차례로 살펴보자. 먼저 각 세부 영역의 논문 수는 다음과 같다.

표 12. 프랑스어 교육과정 분야 논문 수

프랑스어 교육과정	논문 수	백분율(%)
1. 교육과정	15	78.95
2. 교육정책	4	21.05
3. 기타	0	0%
합계	19	100

위 표에서 보듯이 1. 교육과정 관련 논문이 15편(78.95%)으로 가장 많았고, 2. 교육정책 관련 논문이 4편(21.05%)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연구의 독창성을 밝혀주는 핵심어를 조사한 결과, 먼저 교육과정을 주제로 하는 논문의 경우, 교육과정과 공통참조기준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교육과정 지침(2), 교수요목, 실행 교육과정, 내용체계, 성취기준, 공통참조기준(2), 개정 교육과정(2), 교과목 설계’ 등이 주요하였다. 그 다음 교육정책 관련 논문의 경우, 언어교육 정책에 대한 검토가 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언어정책(2), 언어교육 법령(2)’ 등이 주요하였다.

3.2.10. 프랑스어 발음교육

프랑스어 발음교육 분야는 전체의 1.25%(3편)로 12분야 가운데 12위를 차지해 관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다. 비음과 반모음 등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발음을 다수 포함하고, 한국인 학습자에게 생소한 억양 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프랑스어 발음은 학습인 학습자가 습득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어 발음 교육 분야가 보다 활발히 연구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한편 우리는 이 분야의 연구 동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세부 영역의 논문 수와 핵심어를 함께 조사하였다. 먼저 각 세부 영역의 논문 수는 다음과 같다.

표 13. 프랑스어 발음교육 분야 논문 수

프랑스어 발음교육	논문 수	백분율(%)
1. 알파벳	3	100
2. 연음 및 억양	0	0
3. 기타	0	0
합계	3	100

조사결과 1. 알파벳 관련 논문 3편이 발음교육 분야 논문의 전부이며, 2. 연음 및 억양과 3. 기타 관련 논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알파벳을 주제로 하는 논문의 핵심어를 조사한 결과, ‘모음, 자음, 반자음’ 등이 주요한 것으로 드러나, 이와 관련한 알파벳 규칙이 주로 다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었다.

3.2.11. 프랑스어 문학교육

프랑스어 문학교육 분야는 전체의 4.58%(11편)로 12분야 가운데 8위를 차지해 관련 연구가 미미한 편으로 드러났다.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에 해당하는 의사소통 능력 발달을 위해 실용적인 표현과 일상적인 문화가 중요시 되면서, 문어적 표현이 풍부하고

비일상적인 내용이 담긴 문학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여겨진다. 이제 이 분야의 연구 동향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세부 영역별 논문 수와 주제를 엿볼 수 있는 핵심어를 차례로 살펴보자. 먼저 각 세부 영역의 논문 수를 살펴보자.

표 14. 프랑스어 문학교육 분야 논문 수

프랑스어 문학교육	논문 수	백분율(%)
1. 문학교육	11	100
2. 기타	0	0
합계	11	100

이와 같이 1. 문학교육 관련 논문 11편이 이 분야 관련 논문의 전부였다. 다음으로 문학교육을 주제로 하는 논문의 핵심어를 조사한 결과,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문학교육과 문학교육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문학교수학, 문학텍스트, 텍스트 기호학’ 등이 주요하였다.

3.2.12. 프랑스어교육 일반

프랑스어교육 일반 분야는 전체의 7.92%(9편)로 12분야 가운데 5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이 분야의 연구 동향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각 세부 영역의 논문 수와 핵심어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세부 영역의 논문 수를 살펴보자.

표 15. 프랑스어교육 일반 분야 논문 수

프랑스어교육 일반	논문 수	백분율(%)
1. 프랑스어 교육학	6	31.58
2. 프랑스어교육 현황 및 고찰	13	68.42
3. 기타	0	0
합계	19	100

위 표에서 보듯이 2. 프랑스어교육 현황 및 고찰 관련 논문이 13편(68.42%)으로 가장 많았고, 1. 프랑스어 교육학 관련 논문이 6편(31.58%)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연구의 독창성을 밝혀주는 핵심어를 조사한 결과, 먼저 프랑스어 교육학을 주제로 하는 논문의 경우, 프랑스어 교육 특성화와 다양화가 논의되었음을 보여주는 ‘프랑스어 교육 실제, 프랑스학과 특성화, 프랑스어권 교육 전문화, 과학적 학문, 외국어 교육 다양화’ 등이 주요하였다. 그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현황을 아우르는 ‘프

랑스어교육 현황 및 고찰’ 관련 논문의 경우, ‘대학 전공 프랑스어 현황(3), 중등학교 프랑스어교육 현황(4), 수능 프랑스어 변천, 대학 교양 기초 프랑스어 현황(5), 개선방안(5)’ 등과 같은 핵심어가 주요하였다. 이 가운데 대학 교양 기초 프랑스어 현황(5), 개선방안(5), 중등학교 프랑스어교육 현황(4), 대학 전공 프랑스어 현황(3)이 3회 이상의 빈도로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이와 관련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3.3. 연구 참여 유형

마지막으로 본 절에서는 연구 참여 저자 수 확인을 통해 국내 프랑스어 교육학의 연구 참여 유형을 살펴볼 것이다. 연구 참여 유형은 연구 참여 저자 수에 따라 크게 1인이 참여하는 단독연구 유형과 2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제 2005년에서 2018년까지 산출된 총 218편의 연구 논문에 대한 연구 참여 유형 조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6. 연구 참여 유형

연구 참여 유형	논문 수	백분율(%)
1. 단독연구	203	93
2. 공동연구	15	7
합계	218	100

조사결과 단독연구 93%, 공동연구 7%로, 단독연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렇듯 국내 프랑스어 교육학 연구는 대부분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와 달리 최근 연구 환경은 공동연구가 점차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 이유에 대해 다음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연구 프로젝트가 대형화되면서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고, 둘째는, 공동연구에서 중요한 연구자간 소통을 돕는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공동연구 수행이 수월해졌기 때문이며, 셋째는, 상호연구력을 보완할 수 있는 공동연구를 통해 양질의 연구 성과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국내 프랑스어 교육학의 연구 환경 역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4. 프랑스어 교육학 연구의 문제점

이제까지 우리는 프랑스어 교육학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에서 2018년까지 산출된 총 218편의 연구 논문을 논문 수, 연구 주제, 연구 참여 유형 측면에서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프랑스어 교육학 연구의 문제점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것이다.

4.1. 논문 수의 감소

조사결과 2005년에서 2018년 동안 유의미한 양적 변화를 보였던 2007년, 2009년, 2015년을 제외하고 프랑스어 교육학 관련 논문이 꾸준히 감소하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특히 2012년을 기점으로 전체 논문 감소폭이 점차 커졌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2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최소 1편에서 최대 3편, 그 이후에는 최소 3편에서 최대 9편 감소하였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가운데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연구자 수의 감소이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연구자의 한 부류에 해당하는 전국 시간강사 수가 2012년 10만 9743명에서 2018년 현재 7만 5329명으로 2012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논문 감소폭이 커지는 시점인 2012년과 일치하는 결과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¹²⁾ 둘째는, 재정적·행정적 지원 부족이다. 프랑스어 관련 학과가 사라지거나 통폐합되는 현실에서 이 같은 지원은 날로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이 같은 열악한 연구 환경은 연구자의 연구 동기 감소에 영향을 미치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찾는 것의 어려움이다. 논문쓰기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주제를 찾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 가운데 세 번째 요인은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연구자 개인의 연구 역량에 있는 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인은 제도적·정책적 측면과 결부되어 있으며, 특히 문제해결에 있어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놓여있다.

4.2. 특정 분야에 편중된 연구

분석결과 프랑스어 교육학의 12분야 가운데 특정 분야나 영역에 연구가 치우쳐 있음이 확인되었다. 가령 표 2와 그림 2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프랑스어 교육학의 12분야 가운데 프랑스어 문화교육 분야가 22.50%로 1위, 프랑스어 교수법 분야가 20.83%로 2위였으며, 이 두 분야의 합계가 43.33%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다. 반면 나머지 대부

12) 여기에는 대학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발의되었으나, 강사 구조조정 우려를 양산하며 2013년 이후 4차례 유예된 바 있는 이른바 ‘시간강사법’ 등을 비롯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분의 분야는 그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위 4분야, 곧 ‘8. 프랑스어 평가(2.08%, 9위) · 6. 프랑스어 어휘교육(1.67%, 10위) · 1. 프랑스어 교사(1.25%, 11위) · 10. 프랑스어 발음교육(1.25%, 12위)’ 분야는 전체의 1~2%대로 이 분야가 프랑스어 교육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세부 분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가령 ‘프랑스어 교수법’ 분야의 3가지 세부 주제 영역, 곧 ‘1. 교수법 일반, 2. 언어기능별 교수법, 3. 기타’ 가운데 ‘1. 교수법 일반’ 관련 논문은 20%이었던 반면, ‘2. 언어기능별 교수법’ 관련 논문은 76%로 그 비중이 훨씬 높았다. 또한 ‘프랑스어 교재’ 분야의 4가지 세부 주제 영역, 곧 ‘1. 교과서, 2. FLE 교재, 3. (사실·실제)자료, 4. 기타’ 가운데 ‘1. 교과서’와 ‘2. FLE 교재’ 관련 논문은 차례로 25.93%와 11.11%이었던 반면, ‘3. (사실·실제)자료’ 관련 논문은 62.96%로 앞선 두 영역과 비교해 그 비중이 월등히 컸다. 이는 프랑스어 교육학 대부분의 연구 내용이 이 같은 특정 분야와 결부되어 있으며 그 만큼 다양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각 분야 연구 논문의 주제를 엿볼 수 있는 핵심어를 조사한 결과, 동일한 핵심어가 반복되곤 하였던 사실 역시 프랑스어 교육학의 연구 내용 범위가 매우 협소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연구 성과물에 해당하는 연구 논문은 관련 분야의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로서, 연구 논문의 정략적 수치는 관련 분야의 발전 정도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연구 논문이 많은 분야는 그렇지 않은 분야와 비교해 보다 발전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프랑스어 교육학의 발전을 위해 프랑스어 교육학 12분야에 대한 연구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시대적·사회적 흐름과 요구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특정 분야에 편중된 연구는 프랑스어 교육학이 발전적으로 나아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어 교육학의 12분야가 프랑스어 교육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요컨대 특정 분야에 집중되거나 한정된 연구는 프랑스어 교육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문제로 볼 수 있다.

4.3. 공동연구 부족

저자 수 확인을 통해 연구 참여 유형을 살펴본 결과, 단독연구 유형 93%, 공동연구 유형 7%로 나타나, 프랑스어 교육학 분야 연구는 대부분 단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프랑스어 교육학은 비교적 최근까지 개인의 실천과 경험이 규칙화된 기술 영역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관련 연구자들이 하나의 과학적 학문으로서 2인 이상이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2인 이상이 협력하는 공동 프로젝트 수행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연구 환경은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분위기로 변화되고 있다. 공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연구자간 소통을 돕는 통신 기술이 발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단독연구 중심의 국내 프랑스어 교육학 연구 분위기는 최근 연구 환경의 변화에 맞춰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5. 프랑스어 교육학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앞서 우리는 프랑스어 교육학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 가지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이제 우리는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몇 가지 제언으로 본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프랑스어 교육학 분야 논문의 양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진연구자를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프랑스어 교육학계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논문의 양적 변화를 위해서는 연구의 주체인 연구자의 이탈을 막고 연구자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같은 연구 환경 조성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같은 재정적·행정적 지원은 신진연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원로연구자로 구분이 가능한 연구자 부류 가운데 연구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학계의 초보인 신진연구자는 중견연구자나 원로연구자와 비교해 재정적·행정적 측면에서 겪는 어려움이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같은 재정적·행정적 지원은 프랑스어 교육학계 내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의 지원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인문학 중에서도 소외분야인 프랑스어 교육학 신진연구자의 경우,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소외분야 연구 장려를 위해 예산의 일부를 별도로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비율이 3% 내외¹³⁾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프랑스어 교육학계 차원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를 위해 신진연구자에 한하여 연구 기반이 정착되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재정적 부담 없이 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해당하는 논문심사는 연구 경력이 부족한 신진연구자가 부족한 연구력을 보완하고 연구 역량을 키우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회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1회 6만원에서 10만원 내외인 심사비를 전

13) 2018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세부사업별 계획) 가운데 학문후속세대 및 신진연구자 대상 사업 계획 내용 참조.

면 면제해주거나, 동 학회에 1년에 2회 이상 투고 시 1회 심사비용을 면제해주는 등과 같은 절충적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논문 게재에 어려움이 없도록 10만원에서 20만원 내외하는 게재료¹⁴⁾와 페이지 당 5000원에서 7000원정도 하는 초과 게재료, 그리고 1년에 1회이기는 하지만 논문심사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2~3만원 내외의 가입비와 연회비 역시 일정 기간 면제해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프랑스 관련 학회가 학회 축적 자금의 일부를 신진연구자 양성을 위한 기부금 형식으로 분담하여 우수 신진연구자를 지원·양성하는 방안이나, 학회 자체 지원 연구 등에서 신진연구자를 우선 지원하는 등의 제도적·행정적 배려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특정 분야에 편중된 연구와 공동연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연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국내 프랑스어 교육학 연구는 공동연구가 점차 증가하는 최근 연구 환경과 달리, 단독연구 93%, 공동연구 7%로, 공동연구 비율이 현격히 낮았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확인한 문제 가운데 특정 분야에 연구가 편중되고, 연구내용이 다양하지 않으며, 나아가 논문 수가 감소하는 문제는 논문쓰기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연구 주제를 찾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볼 때, 연구자의 연구 아이디어 고갈이나 연구 동력의 상실 등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2인 이상의 연구자가 협력하는 공동연구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연구할 때 서로에게 영감을 얻음으로써 새롭고 다양한 연구 아이디어를 찾기가 수월하고, 그에 따라 연구 동력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은 영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창의적·혁신적 사고가 싹틀 가능성이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연구력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보완 및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구 시도는 물론 논문의 질적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오늘날 프랑스어 교육학의 어려움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연구 논문의 눈에 띄는 양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고 볼 때, 연구의 질적인 성장과 발전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를 도모할 수 있는 공동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공동연구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이유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회 홈페이지에 공동연구란을 마련해, 마치 구인광고와 같이, 신진연구자 혹은 중견연구자가 관심분야의 연구계획서를 올려 공동연구할 연구자를 찾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두 가지 공동연구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신진연구자와 중견연구자가 진행되는 공동연구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외의 경우로 신진연구자 간 혹은 중견연구자 간 공동연구이다. 이 가운데 신진연구자와 중견연구자 간 공동연구의 경우, 신진연구자는 노련한 중견연구자의 지도를 통해 연구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중견연구자는 연구 동기가 충만한 신진연구자와의 협력으로 연구 동력이 상승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같은 연구자 조합의 공동연구가 보다

14) 한국외국어교육 학회의 경우, 심사비 6만원 이외 게재가 결정되면 게재료 20만원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어 교육학 소외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학회 학술대회의 기획 주제로 흥미로운 연구소의 분야를 선정하여 새로운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심화할 필요가 있다. 학술대회는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학술적 관점을 주고받는 공개적인 학술토론의 장으로서, 학회 학술대회에서의 연구소의 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는 관련 분야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학회 학술대회의 기획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 프랑스어 교육학의 연구소의 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References

- 권오량 (2014). “한국 영어교육학자들의 학문 연구의 특성과 경향”, 『영어교육』, 69(2), 199-220.
- 김은정 (2018). “대학 교양 프랑스어 교육 현황 고찰”, 『어학연구』, 54(1), 125-156.
- 심봉섭 (2005). “과학적 학문으로서의 불어교수법”, 『師大論叢』, 69, 63-78.
- 심봉섭 (2015). “프랑스어 교육학 발달사”, 『프랑스어교육학』, 19-38.
- 이근님 (2015). “평가”, 『프랑스어교육학』, 475-518.
- Bérard, E. (1991). *L'approche communicative*, Paris: CLE.
- Boyer, H. et al. (1990). *Nouvelle introduction à la didactique du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Paris: CLE.
- Bogaards, P. (1994). *Le vocabulaire dans l'apprentissage des langues étrangères*. Paris: Didier.
- Canale, M. et al.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1), 1-47.
- Conseil de l'Europe. (2001). *Cadre européen commun de référence pour les langues*. Paris: Didier.
- Courtilion, J. (1989). Lexique et apprentissage de la langue, *Le Français dans le Monde*. N° spécial Lexiques, 146-153.
- Cuq, J.-P. & Gruca, I. (2003). *Cours de didactique du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et seconde*. Grenoble: Presses Universitaires de Grenoble.
- Galisson, R. (1991). *De la langue à la culture par les mots*. Paris: CLE.
- Moirand, S. (1982). *Enseigner à communiquer en langue étrangère*, Paris: Hachette.
- Rivers, W. M. (1983). *Communicating naturally in second language.: Theory and practice in language teach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은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시간강사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전자우편 : ejk1982@snu.ac.kr

접수일자 : 2019. 3. 3
수정본 접수 : 2019. 4. 2
게재결정 : 2019. 4. 25